

# 위험자산 회피 심리 확산... 회사채 금리 등 기업 부담 커져

## 중동사태와 경제리스크

### ③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글로벌 자금이동·투자심리 위축  
회사채 금리 상승... 3.9%대 진입  
금융당국, 채권 등 시장상황 점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환율과 금리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그동안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국내 자금시장에도 긴장감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자금이동과 투자 심리 위축이 맞물리며 자금시장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회사채(무보증·AA-·3년물)의 금리는 지난 13일 기준 3.926%로 집계됐다. 중동 지역 긴장이 본격화하기 전 2월 27일 3.633%였던 것과 비교하면 0.293%포인트(p) 상승했다.

회사채 금리는 기업이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부담하는 비용

회사채(무보증·AA-·3년물) 금리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보여주는 지표로, 금리가 상승할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회피심리가 강화되면서 회사채 등 신용채권 금리에도 상승 압력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자금시장에서도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업의 단기 자금조달 상황을 보여주는 CP(A1·91일물) 금리는 지난 13일 기준 3.10%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큰 변동은 없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단기 자금시장 금리에도 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들은 운영자금 확보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CP발행 등 단기자금 조달 수단을 활용한다. 단기 자금시장 금리가 상승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단기 자금조달 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

신용채권 금리에도 상승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 신용스프레드는 회사채 금리와 국고채 금리의 차이를 의미하는 지표로 시장 불안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을 기피하면서 이 격차가 벌어지는 경향이 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3일 기준 3.32%로 나타났다. 회사채(3년물) 금리

가 3.926%였던 것과 비교하면 0.594%p 차이가 난다. 2월 27일 회사채(3.633%)와 국고채(3.040%)로 두 금리 간 차이는 0.593%p였다.

금융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신용스프레드가 크게 확대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채권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회사채, CP, 신용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채권시장과 단기 자금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유동성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는 의미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신용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재까지는 스프레드가 크게 확대되는 모습은 아니지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115@metroseoul.co.kr



metro

## >> 1면 '삼성 이익잉여금 400조'서 계속

### HVAC 등 외연확장 탄력 업계, 대규모 투자 전망도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올해까지 10나노 5세대(1b) D램 공정 전환을 이어가는 동시에 경기 평택 공장을 중심으로 신규 라인 증설을 통해 10나노 6세대(1c) D램 생산 능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M&A 규모도 키워나가는 모습이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총 308개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80개 증가한 수치다. 이는 삼성전자 역사상 최대 M&A였던 하만 인수 직후인 지난 2017년의 증가 폭을 웃도는 기록이다.

특히 회사는 AI데이터센터의 핵심 설비인 냉난방공조(HVAC) 시장에서 외연 확장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유럽 최대 공조기 업체인 독일 플렉트그룹의 인수 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다. 한화 약 2조3800억원에 달하는 대형 M&A 절차를 5개월 만에 완료하며 그간 가전제품 분야에 집중돼 있던 냉난방 기술을 데이터센터 공조 영역까지 확장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익잉여금과 순현금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재무적 여력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의미"라며 "AI 반도체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설비 투자나 연구개발 확대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 1면 '오가노이드 기반 장질환'서 계속

### "K-재생의료 가능성 제시"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이번 임상을 통해 장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의 임상적 가능성을 확인하고 난치성 장질환 치료를 위한 차세대 재생의료 기술의 가치를 검증할 계획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유종만 대표는 "이번 IND 승인은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임상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새로운 재생치료 접근법을 통해 기존 치료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장질환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K-재생의료의 글로벌 표준이 되게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국내 1상 IND 승인은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글로벌 임상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회사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되는 국내 임상 시험을 기반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임상을 확대하고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럽에서는 이미 ATMP 인증을 획득했으며 자회사 랩다바이로직스를 통해 독일 공공 펀드를 확보해 임상 자금도 마련했다. 또한 미국에서는 마운트사이나이 뉴욕과 협력해 임상 1상을 추진하고, FDA의 재생의료 치료제 신속 개발 프로그램과 RMAT 등 다양한 신속 심사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metro



metro

# 당정, 고유가 대응 총력... "이달안에 추경안 국회 제출"

## 추경규모 미정... 물류자금 등 지원 3년 6개월만에 국고채 바이백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중동 사태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에 과장이 커지는 서민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달 말까지 편성하기로 했다. 또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대비해 원자력발전·석탄화력발전 가동률을 높이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간사 안도걸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함께 2차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논의 내용을 전했다.

당정은 이날 중동 사태와 관련해 에너지 수급 안정 문제, 석유류 가격 등 물가 안정,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외환 금융시장 안정,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문제 등을 점검했다.

추경안은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안 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TF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동사태 경제대응 TF 제2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원은 "정유사 손실 보전과 서민·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지급, 수출 피해 기업 물류 자금 지원 등이 주요 (편성 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추경 규모는 아직 미정이다. 다만 안 의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예상분을 15조원~20조원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추경에 쓸 수 있는 재원 규모가 그 정도 된다는 거지, 실제 추경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별도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부처 보고에 따르면 현재 원유 비축량은 208일분, LNG(액화천연가스) 9일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LNG의 경우 비축량이 적지만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다 확보했다"고 했다.

또 산업통상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한 위기 관리 단계를 이번 주 중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할 방침이다. 석탄발전량 80% 상한제를 이날부터 해제하고, 원전 이용률을 60% 후반대에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플라스틱 원료)는 국내 생산 물량의 해외 수출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나프타의 대체 수입선을 발굴·확보할 계획이다. 여수석유화학 산업단지의

# 중기부, 수출 중소기업 물류비 부담 덜다... 150억 규모 바우처 공급

## 20일부터 접수... '신속심사제' 도입

중소벤처기업부가 중동 상황 악화로 수출 중소기업 물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05억원 규모의 바우처를 긴급 편성하고 이달 2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16일 중기부에 따르면 흥해·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주요 물류 거점의 운항 차질로 해상운임이 급등하고 전쟁위험 할

증료 등 부대비용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동 특화 항목 신설하고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중동 지역에 수출 중이거나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50만원(정부 보조율 70%)을 긴급 지원한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기존 지원 항목에

▲전쟁위험 할증료(WRS) ▲항만 폐쇄 등에 따른 물류 반송 비용 ▲현지 발생 지체료(Detention Fee)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 등을 대폭 추가했다.

아울러 올해 1차 수출바우처에 선정된 기업도 중동 수출 실적이 확인 될 경우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정책의 유연성을 높였다.

중기부는 또 사흘 이내에 바우처를

발급하는 '신속심사제'를 도입한다. 분쟁에 따른 피해기업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신청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 기업은 수출 실적과 피해 증빙만으로 신청 후 3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확정받을 수 있다.

신청은 '수출바우처 전용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상세한 문의는 수출바우처 민원 안내센터로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metro

/이세경 기자 seilee@